

“아픈 사람들 이해하는 의료인 되어 지역사회 사랑 보답”



(17) 완도 금일중 3학년 노태희 양

‘글로벌문화체험캠프’서 외국어 분야 두각
고향에 남아 특기 키우며 공부해 나갈 것
전남도·도민들 응원 큰 힘...더 힘내야죠

고 싶다”는 그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의 시계탑 빅벤(Big Ben)에 가보는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인 장소로 빅벤을 꼽았다.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전문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픈 사람들의 심적, 신체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친근한 의료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노양은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운 뒤에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미래를 위해 소중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저를 위한 전남도와 도민들의 응원이 제

“다들 도시로 나가지만, 전 완도 평일도 (금일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며 계속 능력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잡잡해지면 가끔 외국에 나가 해외 트렌드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노태희(15·완도 금일중 3년) 양은 전복 양식을 하는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금일중 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이다. 도시로 나가 경쟁하는 대신 섬에 남아 특기를 키우고, 부족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보완해볼 생각이 다. 지난해 전남도가 실시한 ‘글로벌문화체험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낸 노양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분야에서 소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 인재로 불리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지역 인재에 걸맞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노양이 가장 아쉬운 점은 금일중에는 바이올린, 피아노, 우쿨렐레 등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 등을 통해 배움을 시도하고 있지만, 직접 배우는 것에 비해 속도가 더디다.

“외진 곳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



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 학교 밖 청소년센터, 청소년에 급식키트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청소년들에게 급식키트를 지원했다. 이번 급식키트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대 제공>

청주시의회, 북구의회에 수해 구호물품 기탁



청주시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컵라면, 화장지 등)을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에 기탁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청주시를 도와준 북구의회에 감사를 표하고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북구의회는 당시 청주시 오송읍을 찾아 축사 농가의 침수 폐기물, 토사 등을 정비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수해가 심한 이천대 31세대(5개 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북구의회에서 자체 마련한 위문품도 함께 전해진다.

표범식 북구의장은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청주시의회에서 보내는 따뜻한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구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마련한 구호 물품이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잘 전달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길 잃은 치매 할머니 가족에 인도한 광산우체국 최현철 집배원



“내 할머니 같이 잠시 보살펴 드린 것 뿐...할 일을 한 것”

광주광산우체국(국장 박춘원) 소속 집배원이 배달업무 중 길가에서 우왕좌왕하는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처럼 돌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광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최현철(31)씨는 지난 8월말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역에서 배달을 하던 중, 치매 할머니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최씨는 A씨의 목걸이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했다. 불안해하는 A씨를 진정시키고자 대화를 이어가고, 빵을 사주기도 했다.

A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제 할머니 같이 잠시 보살펴 드린 것 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사례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최씨의 연락을 받고 무사히 할머니를 찾았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 아직 따뜻한 인정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최씨는 “우리사회에 작지만 따뜻한 정이 전해 질 수 있도록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방수 원단 ‘고어텍스’ 개발 로버트 고어 별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방수(防水) 원단 ‘고어텍스’의 개발자 로버트 고어가 지난 17일(현지시간) 8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팜은 밖으로 배출하고 눈-비의 침투를 막는 고어텍스는 등산복과 신발 등 수많은 아웃도어용품에 적용되면서 많은 이들로 부터 사랑받고 있다. 심장 패치와 같은 의료가거나 우주복, 기타 등등을 제조하는 데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연립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0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팔도밥상 스페셜	00 준비타점(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0 투페이스(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뽀뽀뽀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안방 우리말(재) 55 UHD 스포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셀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같이 삼시(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kbc특집다큐멘터리 내 생애 가장 빛나는 날, 나는 여수로 간다(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준비타점	20 공부가 머니?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 토론	10 불타는 청춘
[12]	10 KBS 스포츠 중계식 (2019-2020 ABB FIA 포뮬러1 챔피언십)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2:30 클래스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하이어 슈퍼픽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00 땀땀 땀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뽀로로 동화나라	14:45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아시아 핫 플레이스 -신에게 가는 길, 징장 열차>
08:45 방귀대장 뽀뽀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09:00 픽시	16:15 최고! 호기심딱지	<동쪽으로 튀어 2부 읍천 해녀들의 바다 인생>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뽀로로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	17:20 아옹명명 귀여워2	23:50 클래스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빈 후드	24:20 지식채널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히어로 씨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 하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2일 (음 8월 6일 戊辰) ☎ 010-9790-8237

36년생 평온하게 진행 될 것이니 우려할 바는 아니다. 48년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60년생 일 상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 했던 바의 역할이 보일 것이다. 72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84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바랄 것이 없다. 96년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7, 99

37년생 먼저 논의되어야만 비난을 받지 않는 법이다. 49년생 실용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만 생산성을 도모할 것이다. 61년생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리라. 73년생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임하라. 85년생 마음만으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97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26, 72

3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50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62년생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해소될 수 있다. 74년생 밤심한다면 실수할 수 있다. 86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남의 원성을 사게 된다. 98년생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많은 미련을 남길 수밖에 없는 판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92, 76

39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51년생 향심으로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어떠한 국량이라도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75년생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니라. 8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99년생 오래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82

40년생 힘들어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52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64년생 오직 통일 된 원리로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76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눈요기에 그쳐야지 덤벼들었다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00년생 안 되면 되게 하라. 행운의 숫자 : 45, 59

41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3년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한다. 65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77년생 미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89년생 희망적이다. 01년생 첨예한 논란에 휩싸일 수다. 행운의 숫자 : 10, 53

42년생 칭찬에 기빠하지 말고 뼈아픈 충고에 귀 기울여라. 54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전대미문의 행태로 나타나리라. 66년생 필연적임을 알라. 78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난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90년생 묵묵히 정도를 걸으면 그 만이다. 02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6, 91

31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활로가 보이리라. 43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니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55년생 용기가 없는 이만은 행운을 잡는 법이다. 67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79년생 쥐구멍에도 벌들 날아오니라. 91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9, 93

32년생 절제 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4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56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68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80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92년생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별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0, 54

33년생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있느니라. 45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실이 힘겨워야겠다. 57년생 욕망을 버린다면 큰 손해를 면하게 된다. 69년생 힘든 고비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81년생 어려움이 보이지만 대처 방안도 따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93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손조로움을 더 하겠다. 행운의 숫자 : 21, 75

34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46년생 기묘한 성공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58년생 기발한 요령 보다는 꾸준한 정진이 더 나은 것이다. 70년생 육성을 가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82년생 같은 내 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94년생 변통의 폭이 매우 넓다. 행운의 숫자 : 37, 65

35년생 취약점이 보이니 서둘러 보완해야겠다. 47년생 작으나 생기기 않도록 방법에 신경 써야만 한다. 59년생 연철 고리가 참으로 부실하니 관계의 설정과 활용에 유의하라. 71년생 공연히 헛수고만 할 공산이 크다. 83년생 희망의 보따리를 짊어진 이의 제가 있었다. 95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07, 95